



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북국회의원-전북특별자치도 조찬 간담회에 김관영 도지사와 이원택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전북 국회의원들이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지역 국회의원, 예산 증액·현안 대응 모색

새만금·제2중앙경찰학교 등 점진
공공의대·가정법원 설치법
전북특별법 등 입법 현안 검토
국정과제 연계 후속 대응 모색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2026년 국가예산 확보와 새만금 사업 등 도정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전북자치도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2026년 국가예산

확보 현황 ▲국정과제 반영 후속 대응 ▲새만금 글로벌 첨단전략산업기지 구축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농촌진흥청 식품자원개발부 전북 완전 이전 ▲공공의대·전북특별법·가정법원 등 주요 현안 법안을 집중 검토했다.

국가예산 관련해서는 정부안 반영 상황을 토대로 국회 심의 단계에서 과소·미반영 사업의 증액을 추진하고, 추가 예산을 확보키로 했다.

또 전북의 핵심사업들이 국정과제에 연계된 성과를 실질적인 지역발전 동력으로 전환하는 후속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새만금을 글로벌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 방산 등 첨단전략산업을 실증·육성할 수 있

는 국가 테스트베드 조성 전략도 검토했다.

아울러 현 정부의 역점 시책인 균형성장 달성과 영호남-수도권 간 상생발전, 인구소멸 위기지역 대응 차원에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진청 일부 조직의 수도권 이전 논란을 계기로 농진청 식품자원개발부 전북 완전 이전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 제발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주요 입법 현안으로는 지역 의료격차 해소 및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설치법, 도민들의 재판 접근성 강화를 위한 가정법원 설치법, 전북특별자치도의 위상 강화와 제도적 기반 강화

를 위한 전북특별법 개정안 등에 머리를 맞댔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은 이에 대해 “전북도와 국회의원들이 원팀으로 협력할 때 도민이 체감할 성과를 만들 수 있다”며 “예산과 법안, 주요 정책 현안에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전북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 정치권과 도정이 힘을 모아 도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전북의 미래를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면서 “앞으로도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박지원 변호사, 민주당 평당원 최고위원 경선 본선 진출

전국 120여명 경쟁 뚫고 준결승
상산고·서울법대 출신 변호사
최종선출식 장당 기념행사서 진행

더불어민주당 평당원 최고위원 경선에 박지원 변호사(전주시체육회장)가 본선에 진출했다.

수능 전국수석을 차지한 바 있는 박 변호사는 전국에서 무려 120여 명이 출마한 평당원 최고위원 경선에서 서류심사와 면접 등 예선전을 통과, 준결승에 올랐다. 경기방식은 배심원제로 최종 3인이 겨루는 결승전에 오를 멤버를 뽑는다.

전주 상산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한 그는 전주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고, 첫 도전한 전주시체육회장에 당선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결과발표는 10~1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최종 선출식은 오는 19일 일산 컨



더불어민주당 평당원 최고위원 경선에 박지원 변호사(전주시체육회장, 사진 우)가 본선에 진출했다.

텍스에서 열리는 장당 기념행사에서 있을 예정이다.

전북 정치권은 그동안 최고위원 선출 때마다 연거푸 교배를 마신적이 있어 이번 박지원 변호사의 도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안전점검의 날 맞아 완주 봉동초 일원서交通安全 캠페인

도·어린이안전히어로즈 등 합동
26일까지 초교 주변 집중점검

전북특별자치도는 4일 완주 봉동초등학교 일원에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 합동 ‘아이 먼저’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개학기 통학로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완주군, 완주경찰서, 안전모니터봉사단, 녹색어머니회 등 민간봉사단체와 봉동초등학교 안전히어로즈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하여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이날 도는 등교 시간대 ‘아이먼저 안전먼저’, ‘횡단보도 일단멈춤’이라는 슬로건 아래 어린이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아이 먼저’ 캠페인을 진행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무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 ▲통학로 불법 적재물 등 안전 위해요소에 대한 단속도 병행했다.

도는 연말까지 시기별 안전테마를 정해 시군, 유관기관, 민간안전단체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시내버스 캠페인 홍보 등을 실시해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정광모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도민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 안전 수칙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경찰, 학교, 민간안전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5주 동안 시군, 교육청, 경찰 등과 함께 도내 423개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 및 단속’에 나서고 있다.

/장정철 기자

전북, 2036하계올림픽 유치 본격화...용역 1차 중간보고회

전북연구원·용역사 참여단체별 점검
경제성 검토·대국민 인식조사 완료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년 전주 하계 올림픽·패럴림픽 유치를 향한 발걸음을 본격화한다.

도는 4일 도청에서 ‘2036 전주 하계 올림픽·패럴림픽 기본계획 수립 및 IOC 대응 용역’ 1차 중간보고회를 열고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과제를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도 관계자, 전북연구원, 용역 수행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용역은 지난 5월부터 착수했으며, 국내 법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개최도시 선정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준을

전략적으로 충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전북도는 ▲전북의 대내외 환경 분석 ▲정부 승인을 위한 개최계획서 작성 ▲IOC 미래유치위원회와의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해 단계별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왔다.

또 지난 4월부터 한국스포츠과학원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병행해 유

치 여건 분석과 대국민 인식 조사를 완료했다. 경제성 검토도 9월 중 마무리될 예정으로 도의회 승인과 정부 심사에 대응하고, IOC와의 협의도 지속할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마스터플랜 구체화, 정부 심사 대응, IOC 기준 충족 등 남은 과제를 반드시 성과로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집중안전점검 시군 평가...전주·무주 ‘최우수’

6,600여명 참여 1,463개소 점검
5개 분야 종합 심층 평가
우수사례 확산·후속조치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집중안전점검 시군 평가'에서 전주시와 무주군이 최우수 기관으로, 군산시·익산시·장수군·순창군·부안군이 우수 기관으로 각각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집중안전점검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시설 1,46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점검에는 민간전문가 3,835명, 유관기관 관계자 455명, 공무원 2,322명 등 총 6,600여 명이 참여해 민간 합동으로 추진됐다. 도는 매년 정기적으로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후속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평가는 ▲일반사항(실행계획 수립, 우수사례), ▲점검대상 선정(적설성, 준수성), ▲점검방법(민관합동점검 추진도, 전문장비 활용도), ▲점검결과 이력관리 및 후속조치(사후관리 노력도, 이력·후속조치 노력도), ▲안전문화 확산(홍보 노력도, 주민점검신청제 추진도) 등 5개 분야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뤄졌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전주시는 민간시설물 점검 비율을 68%까지 높여 민간 분야 안전사고지대 해소를 추진했고, 민간단체와 협력해 배수로 정화활동 등을 실시하며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무주군은 수상례저 전문가를 추가로 참여시켜 점검 전문성을 높였으며, 전문 장비 활용도를 82%까지 끌어올려 내실 있는 점검을 추진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시군평가를 통



전북도는 '2025년 집중안전점검 시군 평가'에서 전주시와 무주군이 최우수 기관으로, 군산시·익산시·장수·순창·부안이 우수 기관으로 각각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사진=전북도>

해 발굴된 우수사례를 적극 확산하고, 후속조치를 강화해 도내 전 지역의 안전 수준을 높여겠다"며 "도민들이 안심

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민주당 전북도당, 사회복지인 권익 강화 약속

사회복지의 날 맞아 성명 발표
임금안식월제 등 지원 강조
“사회복지인 헌신에 깊은 감사”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4일 성명을 통해 “오는 7일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복지인들의 활동을 복돋기 위한 제26회 사회복지의 날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도민 돌봄 최

전선에 있는 사회복지인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 “양극화, 저출생-고령화, 노인 빈곤, 지역 소멸이 빨라지는 이때 사회 안전망 강화는 우리 시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훌륭한 해법을 찾다

라도 현장에서 이를 담당해 나아가는 사회복지인에 대한 정당한 보답이 없다면 사회적 돌봄의 근간은 허약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사회복지자 임금 기준 법제화, 사회복지자 권익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자 유급 안식월제 도입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이에 기초해 사회복지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더욱 진전된 정책 도입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국회에서는 법과 예산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은 도민, 지자체 등과 뜻을 모아가겠다”며 “사회복지인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으로 도민은 더욱 따뜻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고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그 노고를 가슴 깊이 담아 도민 돌봄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주장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의회 13일간 임시회 개최...추경안 심사 돌입

도지사·교육감 행정 질의 예정
접수 의안 47건 17일 심의·의결
예결위, 12~16일 추경안 심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5일 제42회 임시회를 열고 17일까지 13일 간의 의정활동을 펼친다.

이번 임시회는 8일과 9일 이틀 간 10명의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접수된 의안 47건을 해당 위원회별로 심사한 뒤 오는 1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5일 오후 2시 개회식에 이어 도지사로 부터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관리 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다. 또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방공무원 해외파견 운영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올해 마지막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은 8일 이정민(남원1)·전용태(진안)·강태창(군산1)·서난이(전주9)·김성수(고창1) 의원이, 9일은 임종명(남원2)·김정기(부안)·이병철(전

주7)·황영석(김제2)·김명지(전주10)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현지의정활동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지)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전북특별자치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어 17일에 제4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과 11월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함께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동의안 등의 의안 및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심의·의결한 뒤 폐회한다.

문승우 도의장은 이에 대해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잘못된 정책추진과 미흡한 제도로 인해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어려운 민생경제를 되살리는 계기가 되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정청래, 최강욱 발언 논란에 윤리감찰 긴급 지시

조국혁신당 성비위 비호발언 파문
조국당 대변인 탈당 기자회견 발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정 대표가 최 교육연수원장에 대해 윤리감찰을 지시한 것은 조국 혁신당의 당내 성비위와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반발한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이 탈당 기자회견을 하면서 최 원장을 발언을 거론한 때 따른 것이다.

강 대변인은 최 원장이 지난달 31일 열린 혁신당 대진·세종 정치아카데미에서 성비위 사건을 축소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녹취 파일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지난달 31일 대전 중구 문화원에서 열린 혁신당 대전세종 정치아카데미 강연 중에서 세종시당에서 발생한 세정 ‘술집 면접’ 성비위 사건을 거론하며 문제 제기자들을 ‘개돼지’라고 비하했다.

유튜브 채널 ‘김두일tv’가 공개한 녹

취록에 따르면, 최 원장은 “조국을 감옥에 넣어 놓고 그 사소한 문제로 치고 받고 싸우는데 아이고”라며 성비위 사건을 ‘사소한 문제’로 규정한 뒤, “그런 일은 혹시 아닌지 저는 잘 모르지만, 당사자의 얘기를 얼마만큼 믿을 수 있고 얼마만큼 정확히 들었는지 그게 우선이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잘 이해가 안 간다”며 “무슨 판단이 있어야지, 그냥 내가 보기에 나는 누구 누구 누구가 좋은데 저 얘기하니까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이견 아니다. 그건 개돼지의 생각”라고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를 꼬집었다.

최 교육연수원장은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의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하위로 써준 혐의로 2023년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 대표는 8.15 특사로 사면복권된 최 원장이 조국혁신당에 가지 않고, 민주당에 잔류하자, 교육연수원장으로 임명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최형열 도의원, 자율방범대 수당 지급 법적 근거 마련 조례안 대표 발의

재난·범죄 긴급대응 시수당 지급
현장활동 보상미비 해소 목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이 ‘전북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긴급하고 위험한 재난이나 범죄 발생 시 자율방범대원의 헌신적인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최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자율방범대의 법적 지위가 공고히 확립되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재난·범죄 대응 활동



최형열 도의원

에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 보상 근거가 미비하여 지원 사고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의 요청에 따른 긴급 대응 활동 시 자율방범대원에게 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수당의 지급 기준과 방법, 금액 등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했다.

/장정철 기자

불법사금융 범죄 3년새 159% 급증 한병도 의원, 정부 종합 대책 촉구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증가
나체사진 협박 등 수법 악랄해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최근 몇 년간 불법사금융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하는 등 그 수법도 악랄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범죄(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발생 건수는 2021년 1,057건에서 2024년 2,735건으로 3년 새 1,678건(159%) 증가했다.

위반 법률별로는 대부업법 위반이 2021년 675건에서 2022년 914건, 2023년 977건, 2024년 1,580건으로 크게 늘



한병도 의원

었고, 올해 6월까지도 이미 1,704건이 발생해 작년 한 해 수치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발생 건수 또한 2021년 382건에서 2022년 558건, 2023년 772건, 2024년 1,155건으로 증가해 지난 3년간 약 세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정부는 해당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법무처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자치도, 인공조명 빛공해 영향평가 착수

전북자치도가 도민의 야간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인공조명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한다.

도는 9월 4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조명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전문가와 시·군 관계자 등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 계획과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용역은 도내 14개 시·군에서 대표 지점 250곳을 선정해 가로등·보안등·공원등 같은 공간조명, 전광판·간판등 광고조명, 건축물·교량의 장식조명 등을 정밀 측정·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 검토하고, 생활환경 개선과 에너지 절감 대책 마련에 활용할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비오는 날 안전운전 수칙

- 감속 운전은 생명!** 노면이 젖었을 때는 최고속도의 20% 감속
- 폭우나 안개로 가시거리100m 미만인 경우 최고속도의 50%감속**
- 안전거리는 평소보다 2배!** 계동거리가 길어지므로 앞차와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
- 급브레이크 급차선 변경 금지!** 노면이 미끄러워 사고가 날 수있으니 주의
- 차량 점검 필수!** 타이어와 와이퍼등 차량 미리 점검 해요!

고창 장호어촌계, 자율관리어업 선진공동체 선정

특별사업비 10억원 확보 저온저장시설 건립 종패생산장 구축 등 투입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창군 장호어촌계가 가 해양수산부의 2025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평가에서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 총 10억원의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를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중 전국 6개소가 신청한 가운데 2개소만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북에서는 고창 장호어촌계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확보한 사업비는 국비 5억 원, 도비 1.2억 원, 군비 2.8억 원, 자부담 1억 원으로 구성된다.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조직하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체 규약을 제정·운영함으로써 수산자

원을 보전·관리·이용하는 제도로,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 마련과 어가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한다. 확보된 사업비는 △어획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저온저장시설 건립 △지역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종패생산장 구축 △작업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전동지게차 구입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도는 이를 통해 장호어촌계의 생산성과 공동체 수익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김미정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특별사업비 확보는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자율관리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도내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지역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2천6백만 수도권 시민에 귀농귀촌 상담홍보

6일까지 상담홍보전 개최 도시민 실제 정착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가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전북 귀농귀촌 서울사무소에서 2,600만 수도권 도시민을 대상으로 '전북 귀농귀촌 상담홍보전'을 개최한다.

예비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2015년에 시작된 '귀농귀촌 상담홍보전'은 올해로 11회를 맞이하며, 그간 전북자치도 수도권 귀농귀촌인 유지에 앞장서왔다.

이번 상담홍보전에서는 '내가 그린대로, 고향의 품으로'라는 부제 아래 전북자치도와 13개 시군, 산림조합중앙회 진안교육원의 협업으로 지역별 귀농·귀산촌 상담 및 정책 설명회, 토크 콘서트, 우수 귀농귀촌 정착사례 공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기간 동안 상담관에서는 △'13개

시군별 상담 및 전문상담(귀농, 귀산, 농촌일자리)'을 운영해 지역별 특색있는 지원정책 및 작품선정, 입업과 귀산촌 등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1:1 상담을 제공한다.

또 행사관에서는 매일 △'테마별 오전 특강'을 통해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마인드 함양, 귀산촌의 이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등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북의 귀농귀촌에 대한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귀농·귀산촌 정책설명회'를 비롯해 △'스마트팜 토크 콘서트', △'나의 세컨드 하우스, 체류형 워터로 4도 3촌 생활하기' 등 성공한 귀농귀촌인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실적인 정보와 생생한 경험담을 전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생명산업 수도'로서 생활권 중심으로 농촌지역 주거사회서비스 등 종합



전북특별자치도가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전북 귀농귀촌 서울사무소에서 2,600만 수도권 도시민을 대상으로 '전북 귀농귀촌 상담홍보전'을 개최한다.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고 전국 최고 수준의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최적의 정착지로 꼽힌다. 민선시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상담홍보전을 통해 수

도권 도시민들이 전북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알고, 실제 정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도시와 농촌이 연결되는 소중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농업인 스마트경영 혁신대회 개최

우수사례판매 노하우 공유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분야 농업인 역량을 제고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서 4일 정보화 농업인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발표 및 농산물 판매 노하우를 공유하는 혁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열린 부문별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15명의 농업인 시상 및 정보화 유공 도지사 표창도 김지희 농촌지도사, 김동욱 대표에게 전수했다.

또한 정보화 우수사례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인 황중운 대표로부터 토마토 온실 환경 정보를 기반으로 수량 증대 및

품질 개선 등을 공유하고, 라이브 커머스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최아연 대표의 주 작목인 '파란'을 실시간으로 판매하는 과정을 시연해 현장의 열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번 대회에서 라이브 커머스, UCC, 정보화 우수사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농업인이 10월 23일 농촌진흥청이 주관

하는 혁신대회에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권택 자원경영과장은 “이번 행사가 정보화 농업인의 화합의 장이자, 디지털 기술을 통하여 우리도 농산물의 특성을 홍보하고 판매가 촉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농진청, ‘여성농업인 농기계 챌린지’ 개최

10일 8개 도·60명 참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촌 여성의 농업기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안전한 농작업 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10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2025 여성농업인 농기계 챌린지’를 개최한다.

‘어 her! 정밀하게, 센스 있게, 한 뼘 더 스마트 하게’란 주제로 치러지는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 8개 도에서 추천한 여성농업인 60명(20개 팀)이 참가해 노동력 절감과 안정적 작물 생육에 꼭 필요한 농업기계 조작 능력을 겨룬다.

총 2부로 나뉘 두둑 성형, 기계 정식, 코스 운전 3개 종목에 걸쳐 △보행관리기를 활용한 두둑 성형 △반자동 정식기를 이용한 배추 모종 심기 등을 진행한다. 수상자 20명에게는 상장과 상품을 수여하고, 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이 주어진다.

아울러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농업기계 10종과 농작업 편의·안전 장비 19종을 전시하고, 안전 훈



보 활동(캠페인)도 예정돼 있다. 모의실험 장치(시뮬레이터)를 활용한 트랙터 운전과 무인기(드론) 비행 체험 등 부대행사도 풍성하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여성농업인이 농업기계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자신감의 도구로 받아들이어 현장에서는 안전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여성농업인 농기계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현장 실습형 프로그램을 강화해 농업기계 활용을 뒷받침하겠다”라고 전했다.

/정소민 기자



김의겸 청장, 새만금 에너지 대전환 시동

세계상공회의소 총회 참석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 이하 새만금청)은 9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 기자단 등을 대상으로 새만금 재생에너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7월 취임한 김의겸 청장이 새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새만금청의 핵심 과제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허브 조성”과 새만금 RE100 계획”에 대해 소통의 자리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의겸 청장은 직접 △새만금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새만금 RE100 산단 준비 등의 내용을 발표했고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자 선정이 완료돼 사업지연 이슈를 해소한 수상태양광 1단계(1.2GW) 사업을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HVDC) 사업과 연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수상태양광 2단계(0.9GW)는 조속한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새만금 RE100 기업에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2030년까지 완료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새만금지역(인근 포함)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규 조력, 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한

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조력발전은 수질개선, 홍수예방,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새만금청은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환경부·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체 연까지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제1산단, 제2산단 등에 RE100 산업단지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외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업을 유치해 새만금의 대전환을 실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의겸 청장은 이날 발표에 이어, ‘새만금신재생에너지 산·학·연 정기포럼’에도 참석해 ‘새만금 RE100 산단’ 구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을 반영해 새만금을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대전환과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성공모델로 만들고 싶다”라면서, “철저한 계획 수립과 속도감 있는 이행 관리, 관계기관 협력을 주도해 새만금이 REal(진짜) RE100의 상징으로 힘차게 도약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중소벤처기업청-JTV 전주방송, 지역 청년 창업가 ‘집중 조명’

우리동네 청년CEO, 10일 첫방송 지역 내수 진작 기대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은 JTV 전주방송과 함께 지역 청년 창업가들의 이야기를 담은 특별 프로그램 ‘우리동네 청년CEO’를 오는 10일 오후 6시 50분부터 JTV 전주방송 ‘즐거운 생활백서’ 코너에서 방송한다고 밝혔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역 청

년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들의 도전과 성장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JTV 전주방송과 협업해 특별 기획 코너 ‘우리동네 청년CEO’를 마련했다.

이 코너는 JTV 전주방송의 정보매거진 프로그램 ‘즐거운 생활백서’에서 방영되며, 단순히 지역 명소나 맛집을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경제의 새로운 주역으로 성장하는 청년 사업가들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이를 통해 청년 창업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고, 나

아가 판로 확대에 기여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동네 청년CEO’ 코너는 총 9주간 방영되며, 매주 한 명의 청년 CEO가 출연해 창업 계기, 창업 과정에서의 어려움, 극복 스토리,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까지 청년사업가의 솔직한 이야기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희망과 공감을 전달할 예정이다.

최근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상공인의 매출이 급감하는 가운데, ‘우리동네 청년CEO’는 지역의 대표 상

품과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CEO를 집중 조명하며, 이를 통해 청년 창업가들이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중요한 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세희 청장은 “지역소멸 위기 시대에 이번 방송을 통해 로컬크리에이터와 같은 청년 사업가들이 많이 등장해 지역상권이 발전하길 바란다”며 “청년 창업가들의 도전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상생 협력 강화

주요 현안 발생 시 협의 건의

전북특별자치도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산업 육성 △지역인재 채용·양성 △주민지원 및 지역공헌 등 6개 분야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전 기관들의 지역 물품 우선 구매 실적을 공유하고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와함께, 전북도는 향후 이전 공공기관에서 조직 개편으로 타 지역 이전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지역사회와의 신뢰와 협력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실상회 전북자치도 건설정책과장은 “지자체와 이전공공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전북 혁신도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북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인력 배치

6개 교육지원청에 전문직 배치·일반직 내년 배치 예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유보통합 정책 추진 인력을 일선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에 배치하고, 안정적 운용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4일 ‘유보통합관리위원회추진단 협의회’를 개최하고, 유보

통합 정책 추진을 위한 증원 인력관리 및 운용 방안을 협의했다.

유보통합관리위원회추진단은 지난 2023년 발족해 그동안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이관 대상 업무 분석 및 업무 수행인력 규모 파악, 국고 대응투자

와 지자체 특색 사업 이관 여부 및 범위 결정, 애로사항 해결 방안 마련 등에 힘써왔다.

이번 협의회는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전북교육청 인사·조직담

당 내부위원, 14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유보통합 업무 담당자들이 참여해 인력 증원 배치와 효율적인 운용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전북교육청은 올 9월 1일로 전주, 군산, 익산, 완주, 부안, 고창 등 6개 교육지원청에 유보통합 업무를 담당할 전문직(장학사)을 배치했고, 일반직(행정직)은 2026년 추가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는 보육업무

이관을 담당할 인력 4명을 지자체에 파견한 상태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유보통합을 담당할 인력은 앞으로 유보통합의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영유아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 지역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근영여고, 전국중고대회 우승컵 차지

서울 중앙여고에 3대2 승리

‘배구 명가’ 전주 근영여고가 전국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4일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정경산)에 따르면 최근 경북 영천에서 열린 제36회 CBS배 전국중고배구대회에서 근영여고 배구부가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근영여고는 8강에서 만난 광주체육고를 3대2로 승리한 뒤, 준결승에서 서울 일신여상을 3대1로 누르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 상대는 강력한 라이벌이자 올해 각종 국내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막강한 서울 중앙여고.

결승전 담게 양 팀은 폴세르크지치는 대접전 끝에 근영여고가 세트스코어 3대2로 승리를 거뒀다.

이번 대회 우승으로 최우선수상은 정술민(3년), 세터상 이주희(2년), 공격상 이지후(2년), 우수공격상 진수민(2년)이 차지했고 양철호 지도자가 지도자상을 받았다.

전주근영여고 최우영 감독은 “폴세트까지 가는 점전에도 선수들이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않고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전북 배구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대, 8일부터 2026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전체 모집인원 74.5% 선발 글로벌사업 모집단위 광역화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2026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8일부터 12 오후 7시까지 전북대 입학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받는다.

올해 수시모집에서는 전체 모집인원(4,429명) 중 74.5%인 3,301명을 선발한다. 전형 유형별로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906명, 학생부교과전형으로 2,257명, 예체능 실기 135명 등이다. 의과대학은 전년도 2025학년도 수시 모집인원 103명보다 17명 감소한 86명을 선발한다.

전형방법은 학생부종합전형은 1단계 서류평가로 통해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점수(80%)와 면접 점수(20%)를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단, 간호학과, 수의예과, 약학과, 의예과, 치의예과를 제외하고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학생부교과전형에서는 일반학생과 지역인재전형에 학생부 100%를 반영하고,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해 선발한다. 농어촌학생 전형의 경우 학생부 교과성적 80%와 정성평가 20%를 반영해 선발하고,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체능-실기 전형은 학생부와 함께 실기고사 점수를 반영해 합격

자를 선발한다.

2026학년도 입시에서 주요한 사항은 글로벌대학30 사업에 따른 모집단위 광역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계열중심의 모집단위 광역화는 지난해 입시부터 실시한 것으로, 기존 공과대학은 공학계열 1, 2로, 농업생명과학대학은 농업생명과학계열로, 사회과학대학은 사회과학계열로, 경상대학은 경상계열로 모집하는 등 기존 106개 모집단위가 46개로 통합돼운영된다. 이 밖에도 첨단분야 모집단위로 이차전지 공학과와 첨단방위산업학과가 신설됐다.

또한, 2026학년도에는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반영해 감점기준에 따라 환산총점에서 감점 조치된다.

각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및 지원자격, 수능최저학력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전북대 입학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일정으로는 11월 7일 오후 2시에는 1단계 합격자가 발표되고, 11월 6일에는 예체능 실기고사가, 11월 20일에는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이 진행된다. 최초 합격자 발표는 12월 12일 오후 2시 전북대 입학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원단체 “교권보호법 개정하라”

전교조전북지부·전북교총 등 범시민대회 진행

전북 6개 교원단체는 4일 오후 5시 30분 반복적으로 부당한 민원을 제기하며 교권을 침해하는 A초등학교 학부모에 대한 처벌과 교권보호법 개정을 요구하며 전주 에코시티에서 범시민대회를 진행했다.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이 학부모는 지난 2022년 자녀가 이 학교로 전학을 온 뒤 수십차례에 걸쳐 담임 교사 등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민원을 제기했다.

전북교육청은 이 학부모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내렸으나, 학부모의 민원 제기는 중단되지 않았다.

교원단체는 “교육부는 부당한 민원을 제재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야 한



전북 6개 교원단체는 4일 오후 A초등학교 학부모에 대한 처벌과 교권보호법 개정을 요구하며 범시민대회를 진행했다.

<사진=최성민 기자>

다”며 “유명무실한 교권보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라”고 말했다.

이어 “한 명의 악성민원인이 학교 전체를 무너뜨리며 결국 모두가 피해자가 됐다”며 “더 이상 반복된 비극을 만

들지 않으려면,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인과 교사를 괴롭힐 목적의 무고성 신고자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우석대 한의학과, 건선 치료 연구 SCI급 저널 등재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 한의학과 학부생들이 주도한 건선 치료 연구가 SCI급 국제학술지 ‘식물요법연구’에 게재됐다.

논문에는 우석대학교 이해진·소유진 학생이 공동 제1저자로 참여했으며, 건선이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임을 바탕으로 다중 경로에 작용하는 천연물의 치료 효과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천연물이 건선 발병의 핵심 기전인 염증 신호 전달 경로 억제 등 여러 경로에 동시에 작용해 증상을 개선할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

양갑식 지도교수는 “해당 연구는 전통 한의학 이론과 현대 과학기술을 접목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건선 치료 전략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실질적인 연구경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방송인 조나단, 남원 홍보...21일 유튜브 채널서 공개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4일 방송인 조나단이 남원에서의 관광 홍보 영상을 촬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촬영은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전북의 대표 미식과 관광 명소를 소개하는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위해 추진됐다. 영상은 오는 21일 새롭게 개설되는 유튜브 채널 ‘완마전북’(가제)을 통해 공개된다.

영상에서는 조나단이 남원을 찾아 추

어탕과 흑돼지로 만든 하몽, 오징어볶음, 지역 유명 제과점 등 지역 대표 음식을 체험하며 남원의 매력을 유쾌하게 소개한다. 특히 전북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미식 공간들을 빠른 전개와 우수한 품질의 영상으로 담아내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이번 촬영을 시작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배포해 지역 관광지의 매력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전북장애인체육회-태국장애인체육협회, 우호 협력 증진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회장 김관영)는 4일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에 방문한 태국장애인체육협회 임원단을 접견했다.

2일부터 7일까지 전북자치도 익산에서 열리고 있는 2025 익산 장애인펜싱 세계선수권대회에 국제장애인스포츠포럼 집행위원 자격으로 방문한 태국장애인체육협회 회장은 협회 임원단 8명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를 방

문해 장애인체육 발전 방향 및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조형철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와 태국장애인체육협회간 만남이 기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정기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며, “현재 다양한 국제적 장애인체육 교류 협력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무더운 여름 **냉방병** 조심

냉방병 예방수칙

예방법 1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 맑은 공기 유입에 신경 써 주세요.

예방법 2

실외와의 온도차는 4~5도 이내로 설정 해 주세요.

예방법 3

냉방기의 찬 공기가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예방법 4

체온을 유지해 주세요.



군산 비응항 내 작업 바지선서 화재...인명피해는 없어

군산해양경찰서는 4일 아침 8시 5분께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비응항 내에 설치된 어업인 작업용 바지선(어구와 수산물 손질을 위한 무동력선, 가로 4m 세로 8m, barge, 무동력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바지선이 모두 불에 탄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발생 후에 해경은 주변 선박 소유주에게 연락해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이동 조치하는 한편 119 화재진압 소방정(艇)과 함께 해상에서 진화작업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바지선에 실려 있던 LPG 가스통과 바지선 하부 스티로폼에 불이 번졌지만 화재발생 약 40분 후인 08시45분께 완전 진화됐다.

해경 관계자는 “작업용 바지선이 완전 불에 타 분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로 주변 해역에 발생한 오염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초등학교 태권도대회 성료 전국 꿈나무 2천5백명 참가

정읍시에서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초등학교 태권도대회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5일간 국민체육센터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선수단과 관람객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회장 최권열)이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의 초등학교 태권도 선수단 2,500여명이 참가해 그동안 쌓아왔던 기량을 마음껏 뽐냈다.

이번 대회는 품새와 겨루기 두 종목으로 개인전, 복식전, 단체전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됐으며, 대회장은 어린 선수들의 자신감 넘치는 기합 소리와 뜨거운 응원 열기로 가득 찼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전국의 태권도 꿈나무들이 서로의 열정을 나누고 우정을 쌓는 화합과 교류의 장이 되길 바라며, 대회기간동안 정읍만의 멋과 맛을 만끽하시고 소중한 추억을 담아 가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시, ‘안전보건지킴이’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시작

정읍시는 최근 건설, 제조업 등 민간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지킴이 활동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안전보건지킴이는 산업안전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주요 활동으로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 파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점검 △산업안전 관련 법령 안내 등이 포함된다.

올해는 특히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현장의 실질적인 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진옥 도시안전국장은 “산업재해 예방의 핵심은 안전의식 향상에 있다”며 “현장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정읍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 시민화합대축전’ 10월 내내 풍성

이라·익산 통합 30주년 마한문화대전·가요제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익산시가 이라시·익산군 통합 3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한 달 동안을 ‘시민화합대축전’으로 지정하고 다채로운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기념식과 공연으로 막 올라

우선 10월 3일 열리는 제30회 익산 시민의 날 기념식이 축전의 포문을 연다. 익산시는 한(韓)문화 발상지로서의 역사적 정체성을 살리고자 지난해부터 시민의 날을 개전절인 10월 3일로 변경해 기념하고 있다.

올해는 마한문화대전제전과 연계해 더욱 특별한 기념식이 열린다. 30주년을 기념한 가요제와 세계유산등재 10주년 기념 KBS 전국투어 콘서트 등 대형 공연이 이어진다. 기념식 당일 저녁에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수놓으며 대축전의 시작을 확실히 알릴 예정이

다.

이 밖에도 시 전역에서 다양한 문화·체육 행사가 한 달 내내 펼쳐질 예정이다. 주요 행사로 △전국돌문화산업전 △익산예술제 △평생학습축제&교육한마당 △세계문화축제&글로벌 플라마켓 △FCI국제도그쇼 △천만송이국화축제 △시립예술단 공연 △익산북페스티벌이 시민 맛이를 준비하고 있다.

△할인 행사와 공공시설 감면 시민 생활에 실질적인 혜택도 더해진다. 시는 지역사랑상품권 ‘다이어움’ 특별 발행에 더해 익산물과 로컬푸드 직매장, 농협 하나로마트, 웨스턴라이프 호텔 등도 할인 행사에 동참한다.

공공시설 감면도 이어진다. 10월 첫째 주부터 2주간 시 지역 공영주차장 9개소가 무료 개방되며, 서부권다목적체육관·국민생활관·문화체육센터 수영장은 기존 휴관일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공공수마장은 10월 한 달간 체험 상품을 반값으로 할인하고, 보석박물관은 시민의 날 당일 무료 개장한다.

△시민참여 행사·이벤트 풍성



시민과 함께 자부심을 키우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30년 익산의 역사, 30년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시민참여 포럼에서는 도시 성장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발표와 미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 진행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기고 화합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시민화합대축전을 알차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거점 도시 도약

원광대·농기원 창업 지원 인재양성 등 활성화 협약

익산시가 창업 지원부터 인재양성, 일자리 창출까지 산·학·연·관 협력 체계를 가동하며 그린바이오 산업 거점 도시로 도약한다.

익산시는 4일 원광대학교,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원광대학교에서 ‘익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 안호근 한국 농업기술진흥원장을 비롯해 원광대 학생들이 함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유망기업 발굴과 입주 지원 △연구개발(R&D)·사업화 등 창업 전주기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한다.

기관별로 익산시는 행정·재정적 지원과 정책 연계를 담당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기업 관리와 사업화 지원, 원광대학교는 연구개발과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맡아 산·학·연·관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내 기업 입주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그린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방침이다.

정현을 시장은 “이번 협약은 익산이 그린바이오 산업 선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세 기관의 협력을 통해 창업과 연구개발, 인재양성,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비어포트, 기업 행사 최적지 자리매김

문화 체험 연계 워크숍 등 참가자 만족도 높아

군산 재보선장에 위치한 ‘군산수제맥주 복합문화공간’인 군산비어포트가 기업과 기관의 워크숍 및 단체 행사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군산비어포트는 △총 1,249㎡ 규모로 약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단체 공간 △대형 스크린과 음향시설을 갖춘 회의·세미나 시설 △군산 수제맥주와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어 단체 공식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 가능한 점에서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특히 군산항과 재보선장 일원의 역사적 정취, 금강 하구의 이색적인 바다 전망과 군산의 대표 로컬 콘텐츠인 ‘군산 맥주’가 함께 어우러져, 특색있는 행사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인근에는 군산의 대표 근대역사



문화 관광지가 있어 워크숍과 역사·문화 체험을 연계할 수 있다는 점도 기업과 단체 방문객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꼽힌다.

방문객들은 “탁 트인 바다 전망과 넓은 공간이 주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팀워크를 다지고 업무에 필요한 생각들을 나누는 데 최적의 장소였다”고

평했다.

군산시 먹거리정책과 김삼기 과장은 “군산비어포트에서 특별한 경험과 만족감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복합문화 콘텐츠 공간으로 조성해 도시재생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소비쿠폰 이벤트’ 내달 당첨자 발표

30일까지 SNS 이벤트 응모 10월 10일 155명 추첨

정부가 주도로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정읍시에서도 활발히 진행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시는 쿠폰 사용 확산과 참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SNS 인증 이벤트’를 운영 중이다.

이번 이벤트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

여할 수 있다.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에서 결제 후 인증샷을 촬영해 개인 SNS(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채널 등)에 #정읍소비쿠폰 해시태그와 함께 사용 후기를 게시하면 된다. 이후 네이버폼에 게시물 링크와 참여 정보를 입력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시는 참여자 가운데 총 155명을 추첨해 치킨, 햄버거, 커피 등 기프티콘을 경품으로 제공하며, 당첨자는 10월 10일 발표할 예정이다.

소비쿠폰 지급·사용 현황(9월 1일 기

준)을 보면 총 228억원 중 224억원이 지급돼 지급률 98.1%를 기록했다. 사용액은 187억원으로 사용률 83.5%에 달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SNS 인증 이벤트가 단순한 경품 제공을 넘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소비 촉진으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가람시조문학신인상 공모

19일까지 접수

익산시는 ‘제17회 가람시조문학신인상’을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가람시조문학상은 한국 현대 시조문학의 거목인 가람 이병기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시조문학 진흥과 유망한 신인 시인을 발굴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공모 접수 기간은 4일부터 19일 까지다. 응모 자격은 2015년 9월 4일 이후 등단한 경력 10년 미만의 시조시인으로, 최근 3년간 작품 또는 작품집을 발표한 자에 한한다. 응모 대상은 지면에 발표된 시조 작품 중 다른 문학상에서 수상한 적이 없는 순수 창작 작품이어야 한다.

시조문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

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위원회의 최종 의결로 수상자가 결정되며,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0만 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수상자는 오는 11월 1일 가람문학관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상을 받게 되며, 이날 시상식에서는 창작 경력 20년 이상의 중진 시조시인에게 주어지는 ‘제45회 가람시조문학상’도 함께 시상된다.

익산시는 매년 가람문학제를 비롯해 가람 이병기 선생의 문학정신을 계승하는 다양한 문학 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가람시조문학신인상 공모는 시조문학계의 미래를 이끄는 작가들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공무원 노사 공감 토크콘서트 개최

비전 소통·조직 발전 모색

군산시가 4일 금강도서관 금강누리 다목적실에서 ‘소통으로 하나되는 우리 조직’을 주제로 ‘공무원 노사가 함께하는 공감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박덕하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을 비롯해 공무원노동조합원 약 8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시청 비전과 조직 현안에 대해 서로 소통하며 조직의 발전과 방향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노사대표의 인사를 시작으로 노사토크, 직원과의 대화,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노사토크’에서는 조직 여론을 반영한 주요 주제에 대해 노조위원장이 직접 질문하고 시장이 답변하는 형식의

로 소통이 이루어졌으며, ‘직원과의 대화’ 시간에는 사전 설문조사와 현장견의 사항을 통해 조직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노사 대표에게 전달됐다.

특히 인사제도의 투명성 제고 방안, 업무효율 향상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향후 군산시 중점사업 및 조직 구성 방향 등 조직과 관련된 실질적인 정책 제안들이 활발히 논의됐으며,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감 속에 의미 있는 대화가 이어졌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직원들의 솔직한 이야기와 제안이 시청운영에 큰 힘이 된다”라며, “오늘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양성평등 사회 구현 ‘앞장’

양성평등 주간 기념식 개최

정읍시는 4일 연지아트홀에서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기관·단체와 여성단체 회원,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개최했다.

정읍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강정연)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성별에 따른 차별과 소외를 없애고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루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신바람 고고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문화공연, 기념식, 특강 순으로 이어졌다. 기념식에서는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이 수여됐고, 참여자들이 함께하는 양성평등 실천 퍼포먼스로 의미를 더했다.

이어 2부에서는 유인경 작가의 명사 특강이 진행돼 시민들에게 성평등에 대한 공감과 실천 의지를 심어줬다.

행사에 참석한 한 시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무뎠던 여름을 이겨낼 힘을 얻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학수 시장은 “양성평등 구현에 앞장서 온 여성지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양성이 평등한 성숙한 도시, 시민 중심 으뜸 정읍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성평등주간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책임을 나누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정읍시는 이를 기념해 다양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독려

99.1% 신청·12일 마감

군산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분’ 신청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 25만 5,081명 중 25만 2,864명이 신청을 완료해 99.1%의 신청률을 기록했다.

현재까지 총 지급액은 509억 8,099만 원에 달한다.

1차 지급 신청 기한은 이날 12일 까지로, 시는 아직 신청하지 않은 시민에게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카드사 누리집, 앱, 콜센터, 또는 군산사랑상품권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장애인시설, 요양병원, 경로당 등을 직접 찾아가 신청과 발급을 동시에 처리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소비쿠폰은 일반 시민에게 1인당 18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대 43만 원까지 지급되며, 군산시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현 일자리경제과장은 “1차 신청 마감 전에 모든 시민이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다가오는 2차 지급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완주군, 주한외교사절단에 관광 매력 홍보

라오스·필리핀 등 8개국 초청 로컬푸드·웰니스 캠퍼 투어 진행

완주군이 라오스, 필리핀 등 8개국 주한외교사절단을 초청해 완주의 다채로운 관광 매력을 선보였다.

지난 3일 완주군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서면)에서 주관하는 'LOGODI 글로벌 포럼 2025'와 연계해 8개국 11명의 주한외교사절을 대상으로 맞춤형 캠퍼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포럼에는 10개국 해외교육훈련기관장과 주한 외교사절이 참석해 인적 자원개발 우수사례를 공유했으며, 포럼에 참석한 외교사절단도 완주군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외교사절단은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오성한옥마을의 아원고택을 방문해 고즈넉한 한옥의 아름다움을 만끽했다.

이어 우석대학교 W-SKY23 전망대에서 만경강을 품은 완주 경관을 조망하며, 역사와 문화에 대한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투어의 대미는 완주군이 자랑하는 로컬푸드로 장식했다. 군은 새참수레에서 로컬푸드로 만든 한식 뷔페 만찬을 제공하며 외교사절단을 환대했다.

새참수레는 수육을 제외한 대부분

의 메뉴를 신선한 채소 중심으로 구성해 비건식을 선호하는 외교사절단에게 맞춤형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만족도를 더욱 높였다.

만찬에 직접 참석한 유희태 완주군수는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 양성을 논하는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하신 각국 외교사절단을 완주군에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완주군의 아름다운 자연과 건강한 로컬푸드 먹거리, 그리고 따뜻한 정을 느끼셨기를 바라고, 앞으로 완주군과 각국이 다방면에서 활발히 교류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는 4일 경북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자 및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산동면 문화플랫폼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사진=남원시>

남원 산동면 문화플랫폼, 벤치마킹 모델 '주목'

경북 농촌개발 관계자 방문 문화복지·교육운영 복합공간

남원시는 4일 경북 지역 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자 및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산동면 문화플랫폼을 방문해 선진지 견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산동이랑 문화랑: 과거·현재·미래로 보는 문화플랫폼 이야기'라는 주제로 산동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산동면 문화플랫폼을 직접 방문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의 활성화 사례 및 운영 프로그램, 콘텐츠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동면 문화플랫폼은 지역 주민들의 문화·복지·교육을 아우르는 복합 공간으로서, 농촌 정주 여건 개선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특히, 타 시군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계자들이 다수 방문할 정도로 성공 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 참여 및 소통 증대와 복지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받고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산동면 문화플랫폼의 성공적인 운영 노하우가 널리 전파되어, 전국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정주 환경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힐링 명소 '실랜드' 휴식·치유 메카 인기

위케이션센터 일·쉼 동시에 '각광' 휴·메디푸드 교육 올해 1600명 참여

순창군 인계면에 위치한 '실랜드'가 휴양과 치유, 교육이 결합된 복합 힐링 공간으로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실랜드는 숙박이 가능한 분관과 방갈로를 비롯해 식문화 실습이 가능한 실스튜디오, 명상관, 실향기정원, 찜질방과 교육장을 갖춘 건강휴양 체험시설 등 다양한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새롭게 준공한 위케이션 센터는 공유오피스와 팀오피스를 갖추고 있어 '일과 쉼을 동시에 누리는 힐링형 위케이션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체계적인 운영 성과는 방문객 수치로도 확인된다. 올해 8월 기준으로 방갈로 이용객이 2,430명, 치유연수 교육생이 2,471명에 달하는 등 명실상부한 '힐링 1번지'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실랜드를 거점으로 운영하는 휴·메디푸드 힐링 교육 프로그램은 올해만 1,600명이 넘는 교육생이 참여했으며, 만족도가 98%를 기록하는 등 전국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순창군 인계면에 위치한 '실랜드'가 휴양과 치유, 교육이 결합된 복합 힐링 공간으로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순창군>

아울러, 실랜드 프로그램은 편백숲 명상, 아로마 테라피, 치유음식 체험 등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특별한 힐링 경험을 선사하며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실랜드의 우수성은 공식적으로도 인정받았다. 2021년 전라북도 유니크메뉴로 선정된 데 이어, 2024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 '대한민국 우수 웰니스 관광지'에 이름을 올리며 전

북을 대표하는 휴양·치유 명소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의 청정한 자연환경과 전통 발효 식문화라는 독특한 자산을 실랜드만의 차별화된 힐링 콘텐츠로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혁신적인 치유·웰니스 콘텐츠를 통해 실랜드를 대한민국 최고의 힐링 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내년도 외국인계절근로자 수요조사 돌입

읍면동행정복지센터서 접수 신규 초청 기준 가족 2촌 이내 축소

남원시가 내년도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 규모 결정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외국인계절근로자 수요조사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외국인계절근로자는 국내 농촌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 8개월간을 농·어업 분야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남원시에 주소 또는 농지를 소유하고 5개월 이상의 상시고용인력이 필요한 농업경영체등록이 된 농가다. 소수 신청 및 문의는 거주지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특히,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을 고민하는 농가는 법무부에서 서류 위조 입국 등의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남원시는 내년도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 규모 결정을 위해 30일까지 '외국인계절근로자 수요조사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사진=남원시>

내년부터는 재입국 추천을 받은 성실 근로자(4촌 이내 재입국 가능)를 제외하고 신규 인력을 도입할 경우 현행 4촌 이내의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에서 2촌 이내의 가족으로 축소되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남원시는 부족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몽골, 라오스, 필리핀의 지방정부와 MOU체결과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등을 통해 2025년 기준 928명의 계절근로자를 도입 목표 운영중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시설관리공단, 자체 보수로 4천만원 예산 절감

고산휴양림, 공설공원묘지 등 주요시설 공단 직원 투입 보수

완주군시설관리공단이 올 상반기 고산자연휴양림과 완주군공설묘지 주요시설을 자체 점검·보수하며 약 4,0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외부 용역에 의존하지 않고 공단 직원들이 직접 시설 관리에 나서면서 비용 절감과 시설 안정성까지 확보했다.

4월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객실, 숲속의 집, 산림바이오페

스 홍보관, 평상·정자, 가로등, 놀이터, 인공폭포, 화장실, 취사장, 도로, 집수정, 배수로, LED외부등 등 총 31개 분야에 대해 자체 보수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기존 외부 용역을 활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공단 인력과 자체를 활용해 크게 줄였다.

주요 절감 사례로는 △배수로 정비 △평상·정자 청소·수리 △산림바이오페스 홍보관 배관관리 △수조 청소 △도로 보수 등으로, 특히 배수로·수조 정비 등이다.

특히, 대규모 장비가 필요한 작업의 경우 외부 위탁 시 큰 비용이 소요될 수 있었으나, 공단 직원들이 직접 투입돼 전역을 절감했다.

또한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 보수에도 공단 직원들이 직접 참여했다. 이희수 이사장은 "자체 수리·보수는 단순히 비용을 아끼는 것을 넘어,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시설 관리와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옥천장학회, 학생 85명에 장학금 지원

초·중·고 3개 분야 나눠 지급 예·체능 특기 다양한 종목 포함

순창군 옥천장학회(이사장 최영일 군수)가 관내 중고등학교 85명에게 총 5,476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지난 6월 신청을 받아 총 88건이 접수됐으며, 심사를 거쳐 최종 85건(단체 1건, 개인 84건)이 선정됐다.

지원 대상은 관내 초·중·고 재학생으로, 일반 장학금(고등학생 학업우수자)과 예·체능 특기생, 예·체능 학원

비 지원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지급했다.

분야별 지급 내역을 보면 △일반 장학금 45명(2,250만원) △예·체능 특기 장학금 단체 1건(100만원)과 개인 12명(600만원) △예·체능 학원비 지원 27명(2,526만원) 등이다.

특히, 예·체능 특기 장학금에는 역도, 소프트테니스, 생활체조 등 다양한 종목의 학생들이 포함됐으며, 학원비 지원은 미용·메이크업 등 예능 분야 16명과 합기도 등 체육 분야 11명이 수혜를 받았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 보절면, 6일 백중 맞아 남원삼둥굿놀이 개최

지네밭가·함국 민속놀이 재현 대통령상 수상 대표 민속축제

오는 6일 칠월 백중(百中)을 맞이해 보절면 괴양리 일원에서 '제41회 남원삼둥(三童)굿놀이 향토축제'가 개최된다.

남원삼둥굿놀이보존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당산제를 시작으로 기세배, 우물굿, 삼둥서기, 지네밭가, 함국 등을 재현하고, 주민화합행사와 함께 다채롭게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는 최경식 남원시장과 김영태 남원시 의회 의장 및 각 기관 단체장들과 재외 향우들이 함께하여 자리를 빛낼 예정이

다. 삼둥굿놀이는 보절면 괴양리 개신마을의 뒷산이 닭의 형상이고 읍춘마을 앞산이 지네형상으로 마치 지네가 닭을 공격하는 형상을 하고 있어 지네밭가를 행함으로 태어나는 동자들이 임신출세하여 부귀영화를 얻는다는 풍수설화에 근거한 민속놀이이다. 출산, 성장, 임신출세까지의 상상이 묘사되는 것이 특징인 남원삼둥굿놀이는 1982년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는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지난 2001년에는 지역사회 특성과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바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의회 탄소중립특위, 분산에너지 1차 포럼

영농형 태양광 실증 사례 소개 에너지 기본소득 개념 논의

완주군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설위원회(위원장 심부건)는 지난 3일 의회 문화강좌실에서 '분산에너지 1차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심부건 위원장을 비롯해 완주군의회 유익식 의장, 김재천 부의장, 김규성·이주갑·이순덕·서남용·이경애·유이수 의원, 용역기관 전문가, 지역사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분산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지역 적용 가능성을 논의했다.

포럼은 '분산에너지의 기본소득적

특성과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지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에너지 기본소득 개념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실증 사례가 집중적으로 소개돼 큰 관심을 모았다.

포럼에서는 용역기관이 △분산에너지 도입 국내외 사례 △지역 차원의 제도적 보완 필요성 △에너지 복지 확대 방안 등을 발표했으며, 영농형 태양광을 중심으로 농업과 재생에너지의 상생 모델을 공유했다.

심부건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포럼은 분산에너지의 가능성을 군민과 함께 모색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농업기술센터 한우 농가 대상 질병 관리 교육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농업인 상생플랫폼 1층 교육장에서 한우 사육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우 비육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질병 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2025년 하반기 품목별 상설 교육 과정의 하나로, 한우 비육단계에서 발생하기 쉬운 주요 질병을 예방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남원시 한우 사육 농업인이면 누구나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사전 신청 없이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교육은 가족 질병 관리 전문 수의사가 강사로 나서, 비육단계 주요 질병의 진단 및 예방 요령, 위생·환경 관리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며, 질의응답을 통해 농가의 현장 애로사항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 김연주 소장은 "한우 비육 과정은 질병 관리가 곧 경영 안정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번 교육이 농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우 농가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피지컬AI 미래 선도 '자율주행 로봇 여행' 체험 성황

완주군이 피지컬 AI 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며, 지역 청소년들의 미래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3일, 군은 완주군청소년수련관에서 '피지컬 AI 자율주행 로봇 여행'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가족 단위 참가자 100여 명이 함께하며 성황을 이뤘다.

이번 프로그램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자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피지컬 AI와 자율주행 로봇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블록 코딩 실습을 통해 자율주행 로봇의 원리를 배우고, 크레용과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활용해 직접 로봇을 조종하며 다양한 미션을 수행했다.

특히, 장애물 회피, 주차 등 실생활 속 상황을 구현한 미션을 통해 피지컬 AI의 개념을 보다 쉽고 흥미롭게 이해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지난 7월 피지컬 AI 기반 모빌리티 실증 선도산업 세미나를 개최하며 이 분야의 중심지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이번 '가족 로봇 여행' 프로그램 역시 이러한 완주군의 노력과 미래 비전을 담아낸 성과다.

군은 앞으로도 피지컬 AI를 비롯한 다양한 첨단 기술을 활용해 청소년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가을철 급증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강화

순창군은 가을철에 급증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찾아가는 진드기 물림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특히 감염병 발생률이 높았던 마을의 회관을 직접 방문해,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고, 진드기 기피제 사용법 등을 시연하는 등 실습 중심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는 대표적으로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 있다. 이는 각각 쯔쯔가무시균과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진드기에 물릴 경우 감염되며, 2주 이내에 발열, 오한, 구토, 설사,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군 관계자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 자칫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중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크다"면서 "농작업이나 야외 활동 후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찾아 야외활동 사실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문화재단, 김치 담그기 막걸리 빚기 사업 성황리 마쳐

완주문화재단(이사장 유희태)이 2025년 국가무형유산 공동체종목 지역 연계 지원 사업 '반갑다! 우리 무형유산, 김치 담그기·막걸리 빚기' 사업을 최근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 5월 22일부터 8월 29일까지 3개월간 완주향토예술평화관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국가유산진흥원이 국가무형유산 공동체종목인 김치 담그기와 막걸리 빚기 문화의 지역 기반 전승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총 5기수(누적500명)가 참여한 이번 교육은 우리의 소중한 공동체 유산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다음 세대에 전승하기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완주군 향토 음식 '신배이 김치'의 안명자 대표와 지역 특산물 막걸리를 생산하는 기업 '누부신 자연에' 전수미 이사가 강사로 참여해 현장 경험을 전달했다.

이번 교육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전통 식문화의 깊이를 체험하는 기회였으며, 수강생들은 선조들의 품앗이 정신과 공동체 의식을 되새기며 문화적 자긍심을 높였다.

/완주=김명곤기자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성교육의 날 기념 캠페인 전개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센터장 심기본)는 4일 전주시신중학교에서 제2회 '성교육의 날'을 기념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했다.

'성교육의 날'은 아동·청소년이 긍정적이고 건강한 성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성교육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알리기 위해 지난해 시작돼 올해로 2회째를 맞았다.

이번 캠페인은 △성교육의 날? 제대로 알기! △성교육의 날은 언제일까요? 퀴즈 △내가 듣고 싶은 성교육? TALK! TALK! △캠페인 참여 인증사진 찍기 등 청소년들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심기본 센터장은 "한 청소년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성교육의 날이 2회를 맞아, 청소년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성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어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익산농업인, 전북 '농업인 스마트경영 혁신대회'서 입상

농업인 황종흔씨 최우수상 영예

익산시는 익산시정보화농업인 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이 '2025 농업인 스마트경영 혁신대회'에서 입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이 주최했으며, 농업인의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블로그포스팅(청년·장년), UCC(쇼츠), 라이브커머스, 정보화 우수사례 발표 등 4개 분야에서 지난달 경진과 심사가 진행됐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익산

농업인 황종흔·김태희씨가 블로그포스팅 청년·장년 분야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청년 부문에서 최우수상(도지사상)을 받은 청년농업인 황종흔씨는 금마에서 전통 장류 가공·체형을 운영하며 역량을 키우고 있다. 이번 수상으로 오는 10월 열리는 '농촌진흥청 스마트경영 혁신대회'에 전북 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장년 부문에서 장려상(연구회장상)을 받은 김태희씨는 황등에서 생강을 생산·가공하는 '자연도담'의 대표다.

/익산=최준호 기자



2025 농업인 스마트경영 혁신대회에서 익산 농업인 황종흔·김태희씨가 블로그포스팅 청년·장년 분야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사진=익산시>



전북동부보훈지청, 삼례중앙초서 '오늘부터 나는 나라지킴이' 특강

전북동부보훈지청(지청장 신경순)은 9월 4일(목), 삼례중앙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나는 나라지킴이' 일일특강을 실시했다.

'오늘부터 나는 나라지킴이' 특강은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나라사랑의 의미를 배우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특강은 △태극기와 애국가 배우기 △제복근무자에게 감사편지 쓰기 △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 등 체험 중심의 활동으로 진행됐다.

특히 보훈지청 직원이 직접 강사로 참여하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흥미로운 수업을 펼쳤으며, 학생들의 높은 호응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번 특강에 일일 강사로 참여한 전북동부보훈지청 관계자는 "아이들이 오늘 체험을 통해 보훈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고, 스스로 나라지킴이로서의 자부심을 키워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소민 기자

완주FC, 영덕 추계 중등 축구대회 동반 우승 쾌거

올해 두 번째 '더블 크라운'

완주군을 대표하는 축구클럽중 하나인 완주FC가 또 한 번 큰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달 13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 경북 영덕군에서 열린 2025 STAY 영덕 추계 중등 축구대회에서 U14·U15 두 부문을 모두 제패, 고학년·저학년 전 부문 동반 우승이라는 값진 결실을 안았다.

이번 대회는 대한축구협회(KFA)가 주최하고 경상북도축구협회, 영

덕군축구협회, 영덕군체육회가 공동 주관했다.

전국에서 총 129개 팀(U15 64팀, U14 65팀)이 출전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완주FC는 치열한 승부 끝에 U15는 백호그룹, U14는 청룡그룹에서 정상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다.

특히 올해 초 금석배에서 이미 동반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불과 몇 달 만에 같은 기록을 다시 세운 것은 한국 중등 축구 역사상 전례 없는 성과로 평가된다.

/완주=김명곤기자



부안군 체육회, 고향사랑기부금 300만원 기탁

부안군은 지난 1일, 부안군 체육회 임직원 일동이 고향사랑기부금 3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부안군 체육회는 올해 초인 1월 이사회에서도 20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실천한 바 있으며, 이번 기부를 통해 올해 두 번째 단체 참여를 하게 됐다.

지역 체육인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지속적인 기부 참여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확산과 지역 간 상

생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다.

전동일 부안군 체육회장은 "체육회 임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기부에 동참해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지역의 기부문화가 더 넓게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기부는 상호기부 방식으로 타 지자체와 교류할 예정이다.

/부안=신성수 기자



김제시, '마음행복카페 페스티벌: 디오트' 개최

김제시는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서정수)가 4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매년9.10일)을 맞아 죽산면에 위치한 트윈스테이بل 카페에서 시민 300명 이상이 방문한 가운데 '마음행복카페 페스티벌: 디오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마음건강을 점검하고 치유와 힐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소중

한 나를 위한 마음같은 주문' 주제로, 2023년부터 운영해 온 마음행복카페 1~3호점의 협조를 받아 △마음건강 체크, △감정 향수카드 체험, △마음행복 음료 및 시그니처 디저트 제공, △마음한컷 포토존, △마음행복카페 3주년 특별전시 관람을 통해 지역주민, 청년, 청소년이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참여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제=온봉기 기자



남원 도통동, 사천시 자매도시에 주요 시정 홍보·상생 발전 도모

남원시 도통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3일 사천시 선구동을 방문하여 양 동 간 자매결연 교류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남원시 도통동과 사천시 선구동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자매결연 우호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양 지역 간 시정 홍보와 교류 활성화를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교류 일정은 삼천포초등학교, 선구동 행정복지센터, 선구동 주요 상가, 사천시청, 항공우주박물관 등을 순회하며 진행되었으며, 특히 각 방문지마다 남원시가 추진 중인 주요 시정과 정책을 직접 소개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단순한 예의 방문이 아니라, 남원시의 가을 대표 축제와 핵심 정책을 널리 알리며 시정 홍보 위주의 실질적인 교류 일정으로 운영된 것이 특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함께해요!

플라스틱 줄이기

일회용 플라스틱을 생산 하는데는 5초,

사용하는 데는 5분, 분해 하는데는 500년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 '플라스틱 줄이기' 함께 실천 해 주세요



〈一事一言〉



이 대통령 첫 미·일 정상회담, 창의적 ‘실용 외교’ 빛났다(2)

오태규
언론인

이런 때 두 나라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비슷한 어려움을 공유하고 협력하면서 위기를 타개하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이 일본 방문에서 굳이 과거사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미래 협력을 강조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보수 성향 한반도 전문가 빅터 차는 <적대적 제휴-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 안보 체제>라는 책에서, 한일 두 나라는 미국으로부터 방기의 위협을 공유할 때 서로 불안을 공유하고 협력을 확대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미국으로부터 방기의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비대칭적일 경우엔 한일의 역사 갈등이 재발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역사 문제를 밀어내려놓은 건 한일 두 나라가 미국으로부터 동시에 거센 압박을 받는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재명 정권이 ‘트럼프 발 격동의 세계’에 대응해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꾀하려는 몸부림은 일본의 사례 외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대미 수출 몫이 한국 이 상으로 큰 동남아의 강국 베트남의 또 럼 공산당 총서기를 첫 국빈 방문 대상으로 받은 것,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일본·미국 순방에 이어 바로 독자의 외교의 전범국 인도를 방문한 것, 이 대통령이 일본과 미국을 방문하면서 동시에 중국에 특사단을 파견한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대통령 대신 9월 3일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

하는 것 등입니다. 이런 움직임을 함께 묶어서 보면, 공허한 가치와 진영에 갇혀 허장성세 외교에 허우적대던 윤석열 정권과 확연하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정권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초반 성패는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도면밀한 준비로 트럼프의 러브공 공세를 파하고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 메이커(peace maker)를 하고 나는 페이스 메이커(pace maker)를 하겠다’라는 말은 즉흥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그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와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거론할 때 이 대통령의 대응에 더욱 눈길이 갑니다. 소인수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 등 아주 민감한 이슈가 있는 것으로 안다.

과거의 일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잘 지내기가 어려운 것인가”라고 묻자, 이 대통령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미일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뵙기 전에 일본과 미리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걱정할 문제를 미리 정리했다고 생각해서 주시면 좋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했던 전략이 ‘신의 한 수’였음을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한미일 3국 관계는 미·일이 주도하고 한국이 뒤를 따라

가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윤석열 정권 때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하위 구성원으로 참가할 것을 약속한 2022년 11월 프놈펜 한미일 공동선언, 중국과 러시아를 공동의 적으로 삼는 한미일 3국의 ‘유사 군사동맹’을 맺은 2023년 8월 캄페디에비드 회담이 대표적입니다. 이번엔 한미일 협력의 방향이 윤 정권 때와 역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번엔 이 대통령 주도로 한·일이 먼저 손을 잡고 미국의 공세에 대응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큰 나라가 아니더라도 창의적인 외교로 전략적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쾌거입니다.

이런 호평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한일 간 핵심 문제인 과거사를 너무 등한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 동원 관련 시민단체의 비판이 매섭습니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 연대는 “실용 외교 속에 역사 정의가 사라졌다”라고 비판했고,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제삼자 변제는 조약도 아니고 한쪽의 일방적 발표일 뿐인데 ‘국가 간 약속’이라며 그 격을 한껏 높여 주기까지 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빛의 혁명’을 통해 탄생한 정권 이기에 역사 정의 실현에 앞장서라라고 믿었던 이들의 배신감과 분노는 당연합니다. 저는 이 대통령이 적어도 ‘위안부와 강제노동 문제는 역대 한일 정부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다’라는 수준의

발언은 명시적으로 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이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역사 문제도) 더욱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라고 했으니 지켜볼 일입니다.

‘삼국지연의’로 중국제국의 본령을 해석한 김월희 서울대 중문과 교수는 “자원도 인재도 부족한 촉나라가 막강한 부와 인재를 거느린 위나라와 오나라라는 강국의 틈새에서 제국을 건설한 것은 정확한 형세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성공도 정확한 형세 판단과 결단력 있는 행동에 달려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정권은 첫 장애물을 잘 넘었다고 안도해선 안 됩니다. 앞으로 더 큰 산과 강들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끝>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위원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전북 정치권과 도정 원팀 협력, 성과로 보여줘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북 출신 인사들이 정부 주요 부처와 대통령실에 다수 중용되면서 도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런 가운데 전북자치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머리를 맞대고 도정 주요 현안과 미래 발전 전략을 논의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예산과 정책, 입법 과제까지 망라한 논의가 이루어진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실질적 성과로 이어가는 일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2026년 국가예산 확보와 새만금 글로벌 첨단전략산업기지 조성,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공공의대 설립 등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국회심의 과정에서 과소·미반영된 사업의 증액과 추가 예산 확보 방안을 모색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새만금을 글로벌 첨단산업의 테스트베드로 키우겠다는 전략은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과제다. 바이오·방산 등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기업과 연구기관이 언제든지 실험·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와 연계해 실질적인 지역발전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새만금은 더 이상 미완의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심장으로 도약할 수 있다.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또한 단순한 지역 이익 차원을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치안인력 양성 차원에서 절실하다. 영호남과 수도권 격차를 해소하고 인구소멸 위기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도 클 것이다. 여기에 농촌진흥청 일부 조직의 수도권 이전 논란을 계기로, 식품

자원개발부의 전북 완전 이전과 함께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 이는 전북이 더 이상 ‘되돌림 없는 수도권 종속’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입법 과제도 중요하다. 공공의대 설립은 지방의 심각한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가정법원 설치 는 도민들의 재판 접근성을 높여 사법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해 자치권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대등하게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간담회가 보여준 가장 큰 성과는 ‘원팀 전북’의 출발점이라는 점이다. 도와 국회의원들이 따로 놀면 성과는 반쪽에 그친다. 그러나 예산 확보와 입법 추진, 정책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면 도민이 체감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보여주기가 아니라 연속적인 협력 구조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전북은 오랜 기간 국가 발전의 변방에 머물러 왔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정부 요직에 자리한 전북출신 인사들과 도정, 정치권이 힘을 모을 수 있는 호기를 맞았다.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또 다시 ‘기대만 컸던 허망한 시간’으로 남을 것이다.

이제 전북 정치권과 도정이 보여줘야 할 것은 성과다. 도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지역 산업과 생활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결과를 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원팀 정신의 증명이다. 전북이 스스로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오늘의시

가을 / 강은교

기쁨을 따라갔네
작은 오두막이었네
슬픔과 돌이 살고 있었네
슬픔이 집을 비울 때는
기쁨이 집을 지킨다고 하였네
어느 하루 찬 바람 불던 날
살짝 가보았네
작은 마당에는 붉은 감 매달린 나무 한 그루
서성서성 눈물을 줄고 있었고
뒤에 있던 산, 날개를 펴고 있었네
산이 말했네
어서 가보게, 그대의 집으로.....

시인 약력 : 1945년 함남 홍원 출생. 서울서 성장하며 경기여고와 연세대 영문학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국문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대학 교수를 역임했다. 1968년 '사상계' 신인문학상에 '순례자의 잠'이 당선되어 등단했다. 1975년 제2회 '한국문학상', 1992년 제37회 '현대문학상', 2006년 제18회 '정지용 문학상'을 수상했다. 시집으로 '빈자리' '백 속의 편지' 등이 있고 시선집으로 '풀잎' '붉은 강' '허무 수첩' 등 다수가 있다.

독자광장

개학 철, 청소년 사이버 도박에 지속적인 관심 필요



한 사이버 도박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 아닌 유행이 되었다. ‘가임만 해도 게임머니 충전’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등 최근들어 모두가 한바탕 인터넷 웹서핑 중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최근 sns의 증가로 무분별한 불법도박 사이트 광고가 늘어나고 있다. 단순 호기심에 재미로 시작하지만, 점점 돈을 잃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학업이나 가정생활까지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

사이버도박에 빠지는 주요 원인은 호기심(42%) 친구소개(33%)가 대부분이다.

특별한 인증절차 없이 스마트폰을 통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청소년들은 아직 스스로 본인을 조절하는 힘이 약하다. 작은 호기심이 큰문제로 번지기 쉽고 도박사이트가 개인정보를 악용하거나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도박 청소년들은 단순도박에서 끝나지 않고 도박자금 마련하기 위해 또래 친구들의 돈을 뺏거나 친구의 고가 전자기기를 훔쳐 중고시장에 판매하는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에서의 관심이다. 부모님이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살피고, 도박의 위험성을 수시로 자녀와의 대화를 통하여 사용습관을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을 더 강화해야 한다. 또한 학교전담 경찰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학생과의 소통 창구를 늘리고 위험징후가 포착될 경우 빠르게 대응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 다.

사이버 도박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부터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

도박 문제로 상담을 원할 경우 한국도박문제 예방 치유원(1336),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1388)에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

/정읍경찰서 경위 김화금



신경준의고지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 분류 - 천문지리지구, 지리
- 시대 - 조선시대
- 지정일 - 1979년 12월 27일
- 소재지 - 순창군 남산길 32-3

(순창읍, 귀래정신말주선생후손세거지)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발행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영지시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시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발복지시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시-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임실 옥정호붕어섬 생태공원 수국 만개 막바지 여름꽃 경관 선사



안젤로니아메리골드 등 여름꽃 식재 쿨링포그 12개소 설치 시원한 산책

임실군 대표 관광지인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에 여름철 대표 꽃인 수국이 만개하면서 막바지 여름철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특별한 경관을 선사하고 있다.

메타세콰이어길을 따라 심어진 라임라이트 수국이 은은한 연둣빛에서 순백으로 바뀌어 가는 독특한 매력을 뽐내며, 고즈넉한 숲길을 화사하게 물들이고 있다.

장엄하게 뻗은 메타세콰이어길과 풍성하게 피어난 하얀 수국이 어우러져, 마치 유럽의 정원에 온 듯한 낭만적인 풍경을 자아낸다.

또한, 해바라기, 안젤로니아, 메리골드 등 여름꽃 식재도 완료하여, 수국뿐 아니라 다양한 여름꽃을 만끽할 수 있다. 여기에 군은 올해 붕어섬 생태공원 보안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사계절 내내 다양한 꽃과 나무의 아름다운 경관은 물론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쿨링포그를 설치했다.

12개소의 쿨링포그는 여름철 막바지 더위를 식혀주고 시원한 물안개를 맞으며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색다른 체험을 제공한다.

또한, 기존의 연못데크 주변에 부채꽃 1,170본과 연꽃, 앵초, 삼색버드나무 등 다양한 수변식물을 식재할 예정이다.

신나무숲에는 수국 140주를, 작약원에는 산수유 100주와 진달래 1,200주, 공작단풍을 식재할 계획으로, 붕어섬 생태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즐거움은 더욱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붕어섬 생태공원은 계절마다 색다른 풍경을 제공하기 위해 계절꽃 식재와 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해 지난 8월 19일 재개장했다.

재개장 이후,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꾸준히 관광객이 늘어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의 인기를 크게 실감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부족했던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농특산물 판매장과 카페를 개점한 것도 이용객 증가에 한몫했다.

심 민 군수는 "평소 경관 조성에 대한 노력과 더불어 올해 보완 사업 추진을 통해 더욱 풍성하고 매력적인 명소로 거듭날 것"이라며 "방문객들이 일상속에서 특별한 휴식과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실을 기록하고, 지역을 연결하는 전북의 언론”

전북 Times

